

셀트리온, 1.2조 투자·신약 승부수... '글로벌 톱3' 도전

**인천 송도캠에 4·5공장 신설
4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추진
ADC 등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셀트리온이 기존 바이오시밀러 성공에 압도적 생산 능력과 혁신 신약개발을 결합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증설을 통해 국내외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을 정조준하고, 국산 블록버스터 약물 후보 '집펜트라'의 미국 시장 안착, 첨단 바이오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30년 세계 3위권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셀트리온은 주총에서 국내외 생산 기지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인천 송도 캠퍼스에 1조2265억원을 투자해 총 18만 리터 규모로 4공장과 5공장을 신설한다.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기술, 로봇 등도 적극 도입된다. 생산 규모와 효율을 높여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 향후 글



셀트리온 제35기 주주총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로벌 시장에서 입찰 경쟁력을 갖추므로써 미국 외 지역 매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브랜치버그 공장 역시 당초 계획 6만6000리터에서 7만5000리터를 키워 총 14만1000리터까지 확대한다. 미국 현지에서 셀트리온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급변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변수에 따른 위탁생산(CMO) 수요를 충족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의 총 생산 역량은 기존 31만6000리터 대비 81% 커져 현재 57만1000리터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와 함께 세계 3대 생산 기지로 올라서는 것"이라며 "생산 역량은 물론 원료의약품 100%, 완제의약품 90% 수준의 생산 내재화를 통해 수익

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년 3월부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발매되고 있는 셀트리온의 핵심 병기 '집펜트라'에 대해서도 실적 반등을 예고했다.

서 회장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 업체(PBM)의 높은 리베이트 요구와 현지 병원의 시술료 수익 구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초기 시장 진입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던 건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현재는 모든 PBM과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덧붙였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4세대 비만 치료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글로벌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항체·약물 접합체(ADC), 다중항체 등 총 2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임상 1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은 4개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2033년 33개, 2038년 41개 등으로 강화한다. 특히 신제품이 호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카마, 스토브롤로·오센벨트, 움리클로, 엠토즈마, 아이덴젤트 등 5종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매됐음에

도 불구하고 출시 첫 해 연간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비만 치료제 타임라인도 공유됐다. 서 회장은 "기존 1~3세대 비만 치료제의 고질적 문제인 '근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인 4세대 신약 3종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5월 허가용 동물 임상을 시작해 올해 안에 결과를 확인하고 2027년에는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회장은 "미국 정책, 관세 리스크,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 생산 거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트랙'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인적 쇄신과 서 회장의 현장 경영에 대한 의지도 확인됐다. 셀트리온이 독자 구축한 직접판매 체제를 맡았던 김형기 셀트리온 공동 대표(부회장)는 퇴임하고 기우성 셀트리온 공동 대표(부회장)는 재선임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팬데믹 신속대응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

**바이오드-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감염병 대비 공동 연구 체계 가동**

동물의약품 전문 연구개발(R&D) 기업 바이오드가 차세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본격화한다.

바이오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에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함께 '차세대 팬데믹 신속 대응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의 신·변종 감염병 및 인류를 위협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기반 감염 재현 및 치료제 검증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세 기관은 보유한 전문 연구 인프라를 연계하여 감염병 연구 자원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공동 연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체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의 장기 기능을 정밀하게 모사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



바이오드 강민 대표(왼쪽 네번째)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다섯번째)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에서 '차세대 팬데믹 신속 대응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해 감염병의 인체 감염 과정을 재현하는 연구 플랫폼을 제공한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구축된 오가노이드 모델을 실제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접촉해 감염 재현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며, 플랫폼의 과학적 검증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담당한다.

바이오드는 감염병 연구에 필요한 병원체 자원 확보와 동물 유래 데이터 연결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동물의약품 개발과 감염병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오가노이드 플랫폼과 연계해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바이오드 강민 대표는 "이번 협력은 인간 유래 오가노이드 기술과 동물의약품 연구 자원을 결합해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팬데믹 대응 백신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HLB생명과학, 조직은행 허가 취득

인체조직 이식재 사업 확대

HLB생명과학이 조직은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 취득은 지난달 의료기기 전문기업 '올소테크'와 인체 조직 이식

재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후속 성과이기도 하다. HLB생명과학은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등 해당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HLB생명과학이 유통하게 될 '프리티엄 인젝트 리필'은 인체유래 무세포 동종진피 주사제다. 특히 이 제품은 피부 유래 조직에서 세포와 지방 성분을 제거한 뒤,

콜라겐 등 조직 재생에 필요한 세포외기질 성분을 최대한 보존한 의료용 생체소재다. 인대, 건, 관절, 근육 등 손상된 조직 치료와 수술 보완 목적으로 쓰인다.

또 실온 보관이 가능한 의료 현장에서 높은 편의성까지 갖췄다.

HLB생명과학은 향후 다양한 인체 조직 기반 제품으로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우선 공급 대상은 전국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이며 판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구다이글로벌'과 협력 지속

협업 성과 돌아보고 협력 방향 논의

한국콜마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종합기술원에서 구다이글로벌 및 계열사 브랜드 임직원들과 함께 '오버더 레인보우 오브 구다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년간 국내외에서 양사가 협업해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동 개발한 선키어 제품들의 누적 판매량이 1억 개를 돌파한 것은 K부티 중요 성과로 꼽힌다. 산술적으로 지난 5년간 약 1.6초에 1개씩 판매된 수

준이며 K선키어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입지를 다졌다.

한국콜마와 구다이글로벌이 2021년 함께 개발한 '조선미녀 맑은쌀 선키립'은 미국 대표 온라인몰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선키립 카테고리 1위를 기록했다. 라운드랩의 '자자나무 수분 선키립'은 2025년 미국 주요 방송인 NBC가 선정한 '최고의 선키립'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최초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콜마와 K부티 전문 유통사 구다이글로벌은 협업 모델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을 지속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2026년, 성장 전환의 해로"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LG생활건강은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제2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자기주식 소각 승인 등 총 5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LG생활건강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6조3555억원, 영업이익은 62.8% 감소한 1707억원, 당기순손실은 85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등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LG생활건강 '제25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LG생활건강

이울러 사외이사 김재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 보수 한도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LG생활건강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은 "고성장 채널 및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 2026년을 성장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